마운드 떠나는 '太古 구원투수'의 소회



평안케 하소서
호명 지음
승한 정리
태고종출판부 펴냄
2만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태고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일을 향한 종단의 변화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 그것은 바로 종도 여러분과 불자님들의 굳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종단 정상화를 염원하는 큰 원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9년 10월 17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취임사 中

돌아보니 지난 4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첫 걸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예상하고 들어선 길이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한국불교 역사를 고스란히 계승한 전통 종단임에도 예기치 못한 내홍으로 추락한 종단 위상. 어두운 터널 안으로 걸음을 옮기며 호명 스님은 '파사현정(破邪顯正)' 을 되새겼다.

2015년 폭력으로 얼룩진 분규사태, 2019년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으로 인한 갈등까지 불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태고종. 이런 상황에서의 차기 총무원장직은 누가 봐도 '잘해야 본전' 인 자리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순서마저 2위에서 5위까지 물러나야 했던 뼈아픈 현실. 그렇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제27대 총무원장이 된 호명 스님은 위기 상황에 등판한 '구원투수' 다.

〈평안케 하소서〉는 종단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기치로 활동한 호명 스님의 4년을 후학이자 곁에서 시봉한 한국불교신문 주간 승한 스님이 정리한 책이다. 책은 '호명 스님의 발원' 이라는 부제에 맞춰 △사부대중과 함께 걸어온 4년의 여정 △한국불교태고종의 발전을 위한 발원 △수행자들을 위한 발원 △불국정토 장엄을 위한 발원 등 총 4장으로 나뉜다.

수년간 계속된 종단 불안정
무거운 마음으로 원장 맡아
'안정 · 화합' 기치로 내걸고
종단위상 회복에 온 힘 쏟아



2019년 10월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책은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시작으로 선암사 개금불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태고문화축제,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 추대법회 등 종단 주요행사를 비롯해 광화문광장 봉축점등식, 연등회, 정관계 인사들의 예방 등 태고종 위상 회복을 위한 호명 스님의 대외활동을 사진으로 담았다. 여기에 신년사와 봉축사, 각종 법문과 축사 등을 원문으로 더했다.

종단 지도자로서 단상에 선 호명 스님은 늘 같은 법문을 반복하지 않았다. 화엄경과 법화경, 자비경, 대지도론, 법성게뿐만 아니라 새벽 종송까지 인용해 대중에게 법을 설했다. 그러면서도 선사들이 남긴 선시를 가장 많이 활용한 호명 스님. 스님은 그 중에서 조선후기 문신인 이양연의 시이자 일각에선 서산대사의 것으로도 알려진 시를 마음에 새긴다.

답설야중거 (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 (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 (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 (遂作後人程)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호명 스님은 지난 4년,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길을 잘 걸었는지, 잘 걸어왔는지, 발자국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바른 길을 걸었는지 돌아본다.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작 열 살의 나이에 찾아간 선암사. 열다섯이 되던 해 머리를 깎고 사미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자신을 더 나은 수행자로 살도록 이끌어준 은사 성월 복철 스님을 그리며, 흐트러진 발자국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호명 스님은 4년간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며 자부심을 느낀 일로 월간 〈불교〉의 복간을 꼽았다. 또 2022년부터 시작한 '한국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로 태고종과 기관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이 보람이라고.

반면에 포교불사는 스님에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영산재와 수륙재, 생전예수재 등 불교문화의 보고를 간직하고도 포교와 전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호명 스님은 "종단의 유 · 무형 불교문화재를 활용해 포교와 전법불사를 펼치는 것은 다음 소임자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책을 정리한 승한 스님은 호명 스님과 4년간의 리더십을 '외유내강' 으로 표현한다.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는 품 넓은 지도자이자 항상 모든 사부대중을 위한 축원을 올린 수행자. 위기에 빠진 종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구원투수는 그렇게 다음 사람에게 공을 건넸다.

▲저자 **호명 스님**은?

성월 복철 스님을 은사로 1962년 출가해 1964년 선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한 뒤 서울 노원구 염불사 주지, 제30세 선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총무원 종무조정실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총무원 부원장 등을 맡았으며, 서울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와 노원경찰서 경승실장으로도 활동했다.

아이와 함께 읽을 동화 2選

동화로 만나는 대장경 수호자 '김영환'



빨간 마후라 팔만대장경을 지키다
정영애 지음, 윤문영 그림
도서출판 물망초 펴냄 / 1만5000원

매년 해인사에서는 특별한 추모제가 열린다. 바로 폭격으로부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김영환 장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이다. 김영환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었고, 6.25전쟁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영웅이기도 하다. 불교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6.25 전쟁 포로 송환과 북한 이탈 주민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사)물망초의 산하 출판사 도서출판 물망초는 최근 역사 동화 〈빨간 마후라 팔만대장경을 지키다〉를 펴냈다. 〈빨간 마후라〉에는 공적에 묻혀 있던 김영환 장군의 가족사와 불심(佛心), 스님들과의 인연담이 담겼다.

비행기를 유난히 좋아한 김영환 장군이 공군이 되어 나라를 빛낸 영웅이 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김영환 장군은 군인 가족이었다. 일본에서 유학 중 항공학교에 입학한 김영환 장군은 해방 이후 발발한 6.25전쟁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돼 참전한다.

장군은 호기심과 상상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과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항상 평상심을 유지했다. 전쟁 당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과 그 이전에 남한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합류해서 유격전을 벌였는데 이들이 빨치산이다. 빨치산들은 주로 지리산 인근에서 활동했다. 빨치산들이 해인사에 숨어들자 사천기지에 있던 김영환 장군은 작전명령을 받는다. 바로 빨치산 섬멸 작전. '일시: 8월 26일 오전 10시, 지원공격목표물: 화문산과 가야산 일대 항공 지원 요망.'

김영환 장군은 일전에 해인사를 방문하여 주지스님에게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폭격을 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저공비행으로 빨치산들을 해인사 바깥으로 몰아낸 뒤 작전에 성공한다.

이 책에는 우리 가슴에 애국심의 씨앗을 심어줄 또 다른 훌륭한 위인들이 있다. 우리나라 공군을 창설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영환 장군의 형인 김정렬 장군, 빨치산들의 위협에도 해인사를 지킨 주지 효당 최범술 스님, 김영환 장군이 참 애국자라고 한 차일혁 경찰 대장과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선조들이다.

신성민 기자

기후위기 극복 지혜 엿보다



엄마는 어디에
이도흠 글, 윤다은 그림
특서주니어 펴냄 / 1만4000원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의 스펙트럼은 다채롭다. 본래 전공은 고전시가 연구로 원효의 화쟁사상을 기호학과 연결해 '화쟁기호학' 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동화작가로 변신했다. 본격 생태 · 교육 · 철학 동화 〈엄마는 어디에〉를 선보여서다. 항상, 어려운 글만 쓰던 교수님이어서 '읽힐까' 라는 물음표가 생겼지만, 그건 기우였다. 꽤 재미있게 읽힌다. '연어말' 이라는 독특한 설정들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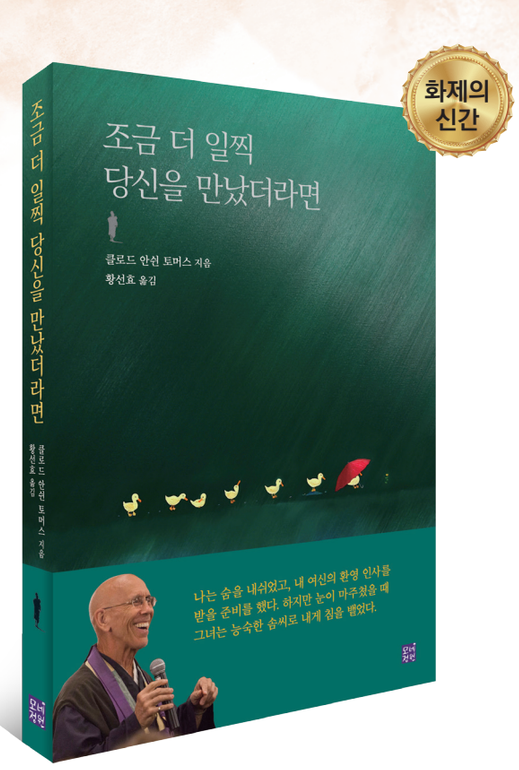
이야기는 물속 세상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달은 아기 연어 삼남매 아리, 마루, 이든이 엄마를 찾아 멀고 험한 여정을 떠나며 시작된다. 슬기로운 새미 '슬기샘' 이 알려주는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따돌림을 당하는 약한 연어들과 마음을 터놓고 화해하고, 모든 물고기들이 고르게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기도 한다. '보드라운내' 라는 따뜻하고 소박한 공간에서 시작돼 머나먼 '고래넘실바다' 에 이르기까지, 아기 연어 삼남매의 이야기 속에는 배려와 존중, 화해, 공존의 가치가 녹아 있다.

〈엄마는 어디에〉에는 옆사람과 눈동자를 마주보며 그 안에 담긴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 것처럼 공감하는 저자 특유의 '눈부처' 사상이 어린이 눈높이로 담겨있다.

책의 말미에는 저자가 새롭게 꾸며낸 연어말을 풀이한 '연어말사전' , 연어 삼남매의 여정을 머릿속으로 따라가며 그려볼 수 있는 지도도 수록돼 있다.

신성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